



사천(동성)이씨 대중회 소식지

제 10 호

백리

萬枝一根

- 발행처 : 사천이씨 대종회
- 발행인 : 회 장 이 영 섭
- 편집인 : 부회장 이 영 근
- 발행일 : 2024년 4월 21일

주소 : 경남 사천시 정동면 여옥길 9 | 홈페이지 : 사천이씨.com

문혔던 보배 빛을 보기 바랍니다



성균진사공파 제26세
대중회장회
회장 이 영 섭

화창한 봄을 맞이하여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삼가 기원합니다.
국제퇴계학 연구회는 2022년 10월 '구암 이정의 인물과 사상'이라는 주제로 학술논문 발표회를 개최하였고, 여기서 정우락(경북대학교)교수는 '구암학 연구의 자료 범위와 한국유학사에서 구암 이정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였습니다.

구암 이정선생은 어득강(1470~1550)과 송인수(1487~1547) 그리고 주세붕(1495~1554)과 사승관계를 맺고, 이황 및 조식과는 사우관계를 맺으면서 학문적 성취를 이룩하였습니다. 이정은 별시 문과에 장원으로 급제한 후 군기시주부를 시작으로 사헌부감찰, 승정원승지 등을 역임한 후 육조의 참의 등 내직을 두루 거쳤습니다. 그 후 경주부윤을 제수받고 임지에 부임해 보니, 백성들은 흐트러지고, 풍속이 문란하고, 여러 왕릉이 허물어지고 문화재가 손상된 것을 보고, 크게 잘못됨을 알고 여러 규정을 만들고 능묘를 봉수하였으며, 서약서원을 창건하고 사당에는 신라 삼헌 설총, 최치원, 김유신 등을 모시고 향사를 받드셨습니다.

순천부사에 제수되어 부임하자 먼저 사적인 임청대를 찾았습니다. 임청대에는 우리나라 유학계의 거성인 한훤당 공적비(1568년 11월 세움)가 있습니다. 김굉필 선생이 무오사화에 연루되어 순천땅에 유배 생활할 때 옥천 냇가에 돌을 쌓아 대를 만들고 매계 조위 선생과 노닐던 곳이었습니다.

임청대는 폐허되어 흔적조차 알아볼 수 없으므로 크게 한탄하고 대를 복원하여 대위에 경현당을 짓고 유혼을 모시고 향사하였습니다. 또한 이곳에 옥천서원을 창건하고 유생이 수학도복 하였습니다. 한훤당이 유배되자 선생의 유문이나 저작이 많이 멸실되어 전하지 않아 이를 수습하여 경현록을 편찬하여 선생의 유덕을 기렸습니다. 김굉필 선생은 후일 경현록으로 인하여 동방 5현으로 추대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구암선생은 26세 때 명나라 사신 일행으로 다녀오면서 많은 유학, 성리학 서적을 갖고 왔으며 성리학 서적 24종을 편간하여 서원이나 유생들에게 공급했으며 책을 발간하여 성리학 발전에 크게 이바지하였으며 특히 퇴계선생도 귀한 서적을 구암선생으로부터 공급을 받아 학문을 크게 성취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동방 5현이 정여창, 김굉필, 조광조, 이언적, 이황으로 도통의 계보로 이어져 그다음 이정이라고 하면서 행정가이면서 교육자로서 많은 업적이 있으면서 그 공적이 제대로 평가 못지 못한 것이 안타깝다고 하였습니다.

경북대학교 영남문화연구원과 사천시가 구암전서 발간을 위하여 자료 수집 계약체결 후 5년간 많은 자료가 발굴되어, 이 자료가 책으로 발간되면 한국지성사에 마땅한 평가를 받을 것이라고 합니다. **문혔던 보배인 구암전서가 하루속히 세상에 나와 빛 보기를 간절히 바라 마지 않습니다.**

다음은 정우락(鄭羽洛)교수의 발표 논문 '한국유학사에서 구암 이정의 역할'의 요점(要點)입니다.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논문은 구암학 연구를 위한 자료의 범위와 이정이 한국유학사에서 던진 문제의식 및 그 실천 등을 두루 다룬 것이며, 이를 통해 한국유학사에서 잊혔거나, 거의 잊힐 뻔한 이정을 우리 시대로 다시 소환하여 그에 대한 학술 사적 위상을 재정립하고자 했습니다. 이정이 영남학파의 주요 일원이었음에도, 현재 남아 있는 그의 문집에는 다른 사람들의 작품이 대거 들어와 있는 등 불안정성이 보이고, 또한 이정은 퇴계학과와 남명학파가 벌인 영남학파의 내적 갈등의 중심에 서기도 하였으며, 제자들을 충분히 기르지 못해 구암학을 구성하는 데 일정한 한계를 보였습니다. 그는 분명 영남학파의 주요 일원으로 매우 중요한 사업을 담당하였으나 한말까지도 그의 역량은 거의 부각 되지 못했습니다.

이정은 이황과 함께 중용학을 바탕으로 도학을 추구하면서 이를 사회적으로 확산하기 위하여 20여 종의 성리서를 출간하였고, 서약정사와 옥천정사를 세워 존현양사를 주도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재원이 필요할 때는 남궁침 등 주변의 관리들에게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하였습니다. 조선의 지성사는 이로써 새로워질 수 있었으며, 도통 역시 명확해질 수 있었습니다. 즉 요순이 전한 심법이 공맹과 주자를 거쳐 우리나라로 전해져, 김굉필→이언적→이황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보였습니다. 이황과 이정의 사우관계가 이 과정에서 형성된 것이니 **이황의 도통은 이정에게 전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가순이 이정을 들어, "퇴계연원(淵源)의 적전(的轉)이요, 유림(儒林)의 종장(宗匠)"이라고 한 것은 바로 이를 두고 이른 것입니다.

이상의 결론으로 파생되는 새로운 과제는 첫째, 퇴계학과 내의 위상 조정에 대한 정치한 논의가 요청도 됩니다. 둘째, 성리서를 통해 조선의 문풍을 개선하고 이로써 풍속을 교화시키고자 했던 그의 사업을 검토해 보는 일입니다. 셋째, 이정과 관련된 다양한 공간을 조사하여 이에 대한 문화론적 접근을 시도해 보는 일입니다.

우리는 국역 구암전서 발간에 즈음하여, 구암학 연구를 위한 자료의 범위와 구암학 연구의 부진 원인, 한국유학사에서 이정이 수행한 역할, 이정이 이룩한 성과 의의, 새로운 과제 등을 두루 논의하였습니다. **이정이 한국유학사에서 간과할 수 없는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동안 그에 대해 제대로 주목하지 못했습니다.** 다양한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조선의 유학사적 맥락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라도 이정의 학문은 심도 있게 연구되어야 하고, 그가 이룩한 업적 역시 재평가되어야 마땅합니다. 바로 이 점에서 우리는 구암학 연구의 새로운 출발선 위에서 있다고 해야 할 것이다.

해마다 4월이 되면 시조를 비롯한 여섯 선조의 제향을 올립니다. 해를 거듭할수록 참례자가 줄어들고 있어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여러 가족이 많이 참여하여 함께 향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대종회 이사회 개최

(2024년 1월 13일)

1. 연도별 대종회 운영 연혁

1973년~1989년

• 1973년 10월 종친회가 창립된 후부터 회의록이나 증무 관련 자료를 찾을 수 없으므로 족보발간에 따른 서문이나 발문에서 종친회와 과거사를 추측할 수 있을 뿐이다.

1930년~1994년

- 1990년 9월 18일 사천고등학교에서 종친회장(회장 이재을)이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시조사우 건립 및 사적지 보존과 대동보편찬위원회를 구성함.
- 1991년(신미) 정월에 이재을 종친회 회장은 전국 종인에게 종사치성(宗事致誠)을 다짐하는 서한을 보냈다.
- 1991년 4월 25일 진주시 대곡면 송곡 모성재에서 6세조 교도공 휘 재(穰), 휘 옥(穡) 祖의 제향을 올리고 종친회 회의를 개최하고 규약 일부를 개정함. 시조사우 건립 장소는 당초 모성재 동쪽 일원으로 하고자 한 것을 변경하여 사천읍 구암리 산34번지에 하기로 하였으나 이 역시 부적지로 판정됨.
- 1992년 8월 28일 임시의사회에서 시조사우 건립을 위한 기금 확보에 최선을 다하기로 결의하고 이재을 회장이 1천만원을 선납함. 회장은 시조사우 건립 장소는 진주지역이 옳지 아니하므로 관향인 사천지역에 건립하기로 결의함.
- 1993년 3월 28일 송곡 모성재에서 춘계제향을 받들고 종친회 회의를 개최하여 시조사우 건립장소는 사천시 정동면 산42번지(참의공파 문중소유)에 건립하기로 함.
- 1993년 7월 12일 참의공파 문중회의를 거쳐 임야 21,322㎡중 약 3,252㎡(참의공 재실 신축부지 포함)를 시조사우 건립장소로 확정하고 1993년 9월 28일 이전등기를 완료함.
- 1993년 7월 31일 청년학생수련회에 종친회장 외 11명이 76만원을 찬조함.
- 1993년 10월 31일 정동면 화암리 산42번지에서 종친회장외 1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시조사우 조원사 기공식을 거행함.
- 1994년 10월 16일 11:00 대종회 회장, 총무, 추진위원장, 실무위원 등65명의 종인이 참석한 가운데 시조사우(조원사)상량식을 거행함.

1995년~1996년

- 1995년 1월 4일 17:00부터 1월 5일 15:00까지 대종회장, 총무, 추진위원장, 실무위원 외 각파 대표 등 13명은 진주 평화호텔 511호실 투숙하면서 시조공 위패 봉송 및 봉안식 계획 준비회의를 개최하였음.
- 1995년 3월20일 시조사우 공사현장에서 종친회 이사회를 개최하고 회장, 총무, 추진위원장, 실무위원 등 37명이 참석한 가운데 2차 시조공 위패봉송 및 봉안식 준비, 시조사우 건립의 원활한 추진, 공사비 모금 방안을 논의함.
- 1995년 4월 15일 15:00 시조 위패 봉송을 위해 회장 이재을 외 종인 15명이 대곡면 송곡 모성재에 집결함.
- 1998년 4월 16일 08:30 참석자 일행은 송곡 모성재에서 준비한 제물로 제사를 지내고 시조공 이하 6세 7위의 위패(지위)를 송봉하여 출발하여 09:30분경 사천의 시조사우에 안착하였다. 종인 약 7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시조공 및 선조 여섯분의 첫 제향을 받드는 이날 봉안식(奉安式)에는 장소가 협소하여 바깥에서 참배할 정도로 대성황을 이루었다.



2. 2023년 주요증무 보고

2023년 조원사 춘계제향 행사 결과보고

- 일 시 : 2023. 4. 16(일요일) 11:00
- 장 소 : 대종회 회관(사당, 일원재)
- 참 석 : 130명 정도(대종회장 외 임원 종원)

- 행사내용
 - 2023 춘계제향 → 사당(초헌관 : 우소재공파 대산문중)
 - 2023 정기총회 및 임원개편 → 일원재 (임원개편결과 : 임원 전원 유임)



- 행사경비결산
 - 수 입 : 7,010,000원
 - 제향 행사참석자 헌금 : 6,010,000(종인)
 - 제향 초헌관 협찬 : 1,000,000(우소재공파 대산문중)
 - 지 출 : 6,330,000원
 - 제주대 경비 : 3,000,000(우소재공파)
 - 부리소식지 간행 : 2,000,000(부회장 이영근)
 - 행사 천막사용료 : 500,000(세종천막)
 - 회의서류 인쇄비 : 250,000(원진인쇄)
 - 기타행사제잡비 : 380,000(조원사청소 식사대 문구비 등)
 - 행사준비경려금 : 200,000(우소재공파 문중 지급)

2023년 구계서원 춘계제향

- 일 시 : 2023년 4월 19일(수요일) 10:30
- 장 소 : 구계서원(서원장 이은식)
- 참 석 : 70명 정도(대관대유계회원 및 종인 등)
- 제례순서
 - 초헌관 : 이팔성 선우랑공파 22세손 (전 우리금융지주대표이사회장)
 - 아헌관 : 정우락(경북대학교 도서관장)



2023년 구계서원 정기총회

- 일 시 : 2023년 5월 12일(금요일) 11:00
- 장 소 : 사천농협2층회의실(서원장 이은식)
- 참 석 : 60명 정도(대관대유계회원 및 종인 등)
- 총회내용 : 2023년 10월 구암학술세미나 개최 등

2023년 구계서원 이사회

- 1/4분기 : 2023년 3월 9일(목요일) 11:00
 - 안 건 : 구암총서발간추후계획, 2023년 춘계제향, 정지총회 건
- 2/4분기 : 2023년 6월 23일(금요일) 11:00
 - 안 건 : 2023년 정기총회개최결과보고, 구암학 학술대회 건
- 3/4분기 : 2023년 9월 17일(일요일) 11:00
 - 안 건 : 2023년 구암학 학술대회, 구계서원 현판 정비 건
- 4/4분기 : 2023년 12월 9일(토요일) 11:00 당면사항협의

구암 이정묘소 현상변경 허가

- 위 치 : 경상남도 진주시 정촌면 대축리 산240-2
- 현상변경신청사유 : 기보수원 묘소에 멧돼지 출몰로 인하여 묘소 및 잔디 훼손을 사전 방지코저 헨스 울타리 설치 허가
- 사업량 : 길이 약200m 높이120m 출입문(쌍문2개소) 개소당2m
- 소요사업비 : 약13,000천원
- 사업경과
 - 1차 허가신청 : 2023. 4월 진주시 경유 경남도
 - 1차 허가신청 반려 민원서류 취하 : 2023. 5월 경남도
 - ※ 반려사유 : 묘소 헨스설치 사업 설계서 미첨부
 - 2차 허가신청 : 2023. 6월 진주시 경유 경남도
 - ※ 2023. 6. 26일 진주시 문화재담당자와 묘소 현장 하단 벌목에 대한 조사 실시
 - 3차 2023. 7. 7일 경남도문화재심의위원 공무원 5명 문중 2명 문화재 현지실태 조사실시
- 허가사항
 - 허가일자 : 2023. 7. 19(경상남도 문화예술과)
 - 허가기간 : 2023. 7. 10~2024. 7. 9

2023년 구암 시조경전 마희

- 일 시 : 2023년 4월 30일(일요일) 10:00
- 장 소 : 사천시청강당
- 참 석 : 100명 정도(초 중 고 일반 등)
 - ※ 대종회에서 시상금 50만원 지원(매년지원)



2023년 구암세 행사 개최 결과

- 일 시 : 2023년 9월 23일(일요일) 10:00
- 장 소 : 사천체육관(사천시 벌리동 소재)
- 참 석 : 400명정도(한시백일장180, 휘호대회150,참관시민70)
- 내빈참석 : 사천시장, 사천시의회의장, 사천교육장, 대종회장, 사천수협장, 사천문화원 임원 등



행사결과

- 한시백일장 당일 10:30~12:30(응시인원 180명)
 - 장 원 : 최해대(울산시 중구) ⇒ 상금 2백만원
 - 방 안 : 송성호(포항시 남구) ⇒ 상금 일백만원
 - 탐 화 : 민경선(대구시 중구) ⇒ 상금 5십만원
 - 휘호대회 당일 13:30~15:30(응시인원 150명)
 - 대 상(한문) : 이숙경 ⇒ 상금 150만원
 - 최우수(한문) : 김해인 ⇒ 상금 50만원
 - 최우수(문인화) : 정준용 ⇒ 상금 50만원
- ※ 대종회 명의 대회 협찬금 30만원 지원



2023년 추계 문화유적지 탐방 결과

- 일 시 : 2023년 10월 25일(수요일) 09:00
- 장 소 : 경남 함안군 일원
- 참 석 : 30명 정도(사천이씨대종회장 외 종인3인, 일반인등)
- 주 관 : 진주 연계재 사무국(연계안을 보관하는 서재)
- 문화유적지 : 함안군박물관, 무진정, 함안무기연당 등

2023년 구암학(龜巖學) 학술대회 개최

- 일 시 : 2023년 11월 3일(금요일) 10:00
- 장 소 : 사천농협 2층(사천읍성로 51 소재)
- 참 석 : 70명 정도(사천이씨대종회 종인, 구계서원 대관대유계, 일반인 등)
- 주 관 : 사천 구계서원 대관대유계회
- 주 제 : 관포(灌圃) 어득강(魚得江)의 문학
 - 발표자 : 김세호(경상국립대) / 토론자 : 황명환(경북대)
 - 좌 장 : 정우락(경북대)



당면 주요 요청사항

- 대종회 임원이사 년회비 미납금 납부 요청
 - 대종회 재산은 조원사 분이며 수익성 재산은 전무하며 운영은 오로지 임원이사 년회비를 가지고 대종회 경비로 운영하고 있음.
 - 지금 현재 기금 고갈 상태로 대종회 운영에 어려움이 많은 실정임.
 - ※ 4년동안 운영비는 인수 9백만원, 임원 이사회비 463만원과 회장 1,200만원을 출연하여 운영할 수 있었음.
 - ※ 위 사항 참고하시고 회비납부 당부드립니다
- 대종회운영비 계좌번호 : 농협 351-0698-3320-43 예금주 사천(동성)이씨대종회

족보편찬사업 2024년 중간보고 (2024년 1월 13일 기준)

- 목표 : 우리 족보는 우리 종인의 역사 기록으로 먼 훗날까지 지속해서 기록되어 전승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종인 각각의 인터넷 족보자료를 충분히 확보하여 우리 종인의 대다수가 활용하고, 그 자료를 인쇄하여 새 족보책으로 만들어 배포하고자 합니다.
- 과정
 1. 인터넷 족보의 외주(부리정보미디어, 총50,729,800원, 2023.8.12. 계약)
 2. 홈페이지 개통 : 2023년 9월 자료입력 및 개통.
 3. 인터넷 족보 개통 : 2023년 10월 홈페이지에 연결.
 4. 대종회 임원 및 수단위원 협의회 개최 : 2023년 11월 12일

5. 인터넷 족보 보완작업 : 2023년 11월 ~ 계속 (1차 마감 2024년 2월말)
업무처리 : 수단위원 또는 종인 → 편집위원 → 부리정보미디어 담당자 입력 → 인터넷 탑재 → 확인 (※오류 있으면 수정요구 → 편집위원)
6. 인터넷 족보 계약에 따른 결제금액 현황(총 계약금 50,729,800원 중)
계약금 5,500,000원, 중도금 20,000,000원 합계 25,500,000원 결제함.
중도금 2천만원 중 1천3백만원이 일시차입금으로 지불.

3. 2024년 주요종무 계획

조원사 춘계제향 행사 계획

- 일 시 : 2024. 4. 21(일요일) 11:00
- 장소 : 대종회 회관(사당, 일원재)
- 참석 : 130명 정도(대종회장 외 임원 종원)
- 추정소요경비 : 700백만원 정도
- 행사내용
 - 2024 춘계제향 ⇒ 사당(초헌관 : 성균진사공파 대곡옹두문중)
 - 2024 정기총회 주요 종무보고
 - 2023년 수입 지출 결산검사 승인
 - 대종회 인터넷 전자족보 추진사항 보고



구암 이정묘소 현상변경 공사 추진

- 위치 : 경상남도 진주시 정촌면 대축리 산240-2
- 현상변경 신청사유 : 기보수된 묘소에 멧돼지 출몰로 인하여 묘소 및 잔디 훼손을 사전 방지코저 펜스설치 및 진입도로 보수(성토작업) 정비
- 사업내용 : 2건
 - 펜스설치 : 길이 약200m, 높이120m, 출입문(쌍문2개소) 개소당2m
 - 묘소진입로 보수정비 : 길이 50m(경사 및 굴곡도로 성토로 보수시행)
- 소요사업비 : 약 25,000천원
※ 허가기간 : 2023. 7. 10~2024. 7. 9

구계서원 제452회 구암선생 춘향제

- 일 시 : 2024. 4. 3(수요일) 11:00
- 장 소 : 사천읍 구암리 구계서원
- 초헌관 : 신현권 향교 전교
- 아헌관 : 곡판도 하동문화원 부원장
- 종헌관 : 조규식 사천고등학교 교장



구암학(龜巖學)의 태동과 전망



구계서원장 문학박사
이은식

구암 이정선생의 학문과 사상은 2001년부터 연구되었다. 구암 학술대회라는 이름으로 사천문화원에서 구암의 생애와 사상, 그의 학문 주변의 확대 그리고 구계서원의 공간적 배경에 관한 제반 연구 등으로 2018년까지 진행하였다. 전국 학문자들이 학술발표에 참여하다시피 하였다. 2권의 연구 도서도 출간하였다.

2017년부터는 구암총서발간 사업을 시작하였다. 사천시에서 8억여원을 연구비로 지원하였다. 5년에 걸쳐 자료를 수집하고 번역하여 구암총서를 완성하였다. 명실공히 구암학의

근간이 마련된 것이다.

이 구암학이 자리매김하도록 경북대학교 국문학과 한문학과 중문학과에서 집중적인 헌신과 노력을 해 주었다.

이후 이러한 연구의 결과로, 구암학은 2023년 11월 구암학 학술대회를 출발신호로 시작되었다.

조선중기 사천에는 당시 곤양군수로 학덕을 높이고 있던 판포 어득강을 필두로 하여, 다음 곤양군수로 부임한 신재 주세붕, 그리고 사천에 귀양와 있던 규암 송인수 그리고 안동의 퇴계 이황이 가세하였고 이들에게 사랑을 받던 구암이정선생도 참여하였다. 이리하여 사천은 조선중기 지성사를 태동하는 지역이 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조선에 성리학을 교육하기 위해, 필요한 서원 건립에 의지를 모았다.

젊은 구암선생은 이러한 학문의 흐름을 전개하여 나가 나중에는 성리학편찬사업을 확장하여 조선중기 학문진작에 가장 많은 공적을 세운 인물이 되었다.

이 의지들이 모여 조선초 최초의 사액서원 소수서원을 필두로 학문 진작의 공간

배경으로 많은 서원이 창건되었다. 성균관 대사성의 직을 가졌던 퇴계, 구암 등은 오늘날 서울대학교 총장의 역할이었다. 홍문관 예문관 대제학을 겸직하였기에 이들은 조선 지성의 중심이었다. 오늘날 구암학이 있게 되었다.

그러나, 아직 구암총서가 책으로 발간되지 않았다. 예산이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총서는 10여권 한질로 약 6,000페이지에 달하는 분량이다. 구계서원에서는 국비나 도비, 시비 등에서 지원을 받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데, 수년 내에 출간이 가능하여져서 대학이나 공공기관에 구암총서가 배포되어 많은 학자들이 연구하는 날이 올 것이라 기대한다.

구산사비의 보물신청도 자료는 준비되었으나 서원에서 예산확보가 숙제로 남아 있고, 이담신도비도 경남도 문화재로 신청을 해 놓고 있다.

학계에서 사천이씨를 잘 알고 있다. 구암선생 때문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구암에 대한 학덕과 공적은 대학에서 많이 알고 있지만, 사천에서는 관심이 미비하다. 사천이씨문중에서도 구암선생으로 일어난 가문의 영광을 피부로 발산하지 않고 텨땨하다. 매우 안타까운 현실이다.

올해 11월에는 구암학 학술대회에 신재선생을 주제로 논문발표를 한다. 경북대, 안동대, 고려대 교수들이 논문을 준비하고 있다.

2000년부터 구암연구를 위해 시작한 나는 구계서원 계단을 오르기 시작한 지 올해로 25년이 되었다. 차기 대관대유계 이사장에게 많은 활약을 기대한다. 많은 숙제를 해결하지 못한 아쉬움에 민망하다.



우소재공파 25세
이영갑
(전 부산청년회 회장,
부산지방법원 전담법관)

다시 판사로 일한다는 것

지난해 2023년 2월 1일자로 다시 법원에서 판사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부산고등법원을 퇴직해서 변호사로 일한 지 19년만입니다. 오랜만에 다시 법원에서 근무하니 감회가 새롭습니다.

저는 법조 경력 20년 이상 된 사람을 대상으로 뽑는 전담법관으로 선발되어 작년 1년간은 소액단독을 담당했고, 올해 2월부터는 중액단독(손해배상 전담)을 맡고 있습니다. 소액단독은 3,000만원 이하 사건을 담당하고, 중액단독은 3,000만원 이상 2억원 이하 사건을 담당합니다. 다만 손해배상 사건은 2억원이 넘어도 제가 담당합니다.

제가 전담법관으로 선발될 때는 2명이 전담법관으로 선발되었습니다. 전담법관 제도는 2012년도에 도입되어 2013년도에 처음으로 3명이 선발되었습니다. 전담법관제도는 국민으로부터 신뢰와 존경받는 재판을 위하여 연륜과 경험이 풍부한 법조경력자를 판사로 임용하는 제도입니다. 민사단독재판을 전담할 사람만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보통 한 해에 3~5명 정도 선발하는데, 어떤 해는 1명만 선발한 때도 있습니다.

다시 법원에서 근무하게 되니 그동안 바뀐 것도 많고, 생소한 부분도 많습니다. 옛날에는 야근을 꽤 많이 했는데, 요즘은 그렇게 많이는 하지 않습니다. 판사들의 분위기도 야근을 밥 먹듯 하던 과거와는 달리, 일보다는 가정과 개인 시간을 더 중요시하는 것 같습니다.

판사의 업무환경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기본적으로 판사실에서 일하고 법정에서 재판하는 것은 그대로입니다만, 요즘의 민사소송은 전자소송이 기본입니다. 그래서 옛날처럼 기록을 산더미처럼 쌓아두고 일을 하지는 않습니다. 증거와 서류 등 모든 기록이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어서 항상 컴퓨터를 켜고 화면을 들여다보아야 합니다(형사사건은 아직 완전히 전자소송으로 되지는 않았고, 일부 선택적으로만 전자소송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류결제도 모두 전자로 합니다.

법정에서 증거를 볼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대형 화면에 띄워서 같이 봅니다. 요즘은 원격으로 하는 영상재판도 꽤 많이 합니다. 영상재판을 하게 되면 법정 출석할 필요 없이 자신의 사무실이나 가까운 법원에 나가서 컴퓨터 화면을 보면서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판사들끼리의 모임도 많이 줄었습니다. 과거에는 같은 업무를 하는 판사들끼리 아니면 비슷한 연배나 기수의 판사들끼리 어울릴 기회가 많았고, 법원의 공식적인 행사도 꽤 있었는데, 요즘은 그런 모임이나 행사가 거의 없습니다. 체육행사도 소규모로 퇴근 시간 이후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거에는 평일에 체육행사 하느라 필수 요원만 두고 직원 전부가 자리를 비우는 일도 있었는데 말입니다.

주위에서 저에게 "변호사로 편하게 지내지, 왜 새삼스럽게 힘든 판사 일을 다시 하느냐"고 묻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특히 제가 대형 법무법인의 대표변호사뿐 아니라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이기도 했고,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도 할 정도로 변호사로서 어느 정도 성공했다고 할 수 있는데 왜 다시 판사로 일하느냐는 것입니다.

사실 변호사로 일하는 것이 시간적, 경제적으로 훨씬 편하고 좋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삶이란 게 꼭 그렇게만 볼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이런 삶도 있고 저런 삶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변호사로 사는 삶도 나름대로 보람 있고 좋은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19년이나 변호사로서 일했겠지요. 하지만 판사로서의 삶도 꽤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근무 시간에 얽매이고, 경제적으로 좀 불리하더라도 말입니다.

그래도 변호사로서의 편한 생활을 하다가 다시 판사의 길을 걷는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선택은 아니었습니다. 제가 고등법원을 퇴직할 당시 어느 정도 경제적으로 안정이 되면 다시 법원에 들어가야겠다는 생각이 조금은 있었지만, 변호사 생활에 젖어있다가 보니 새삼스럽게 다시 법원으로 들어간다는 게 쉬운 결정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다가 결정적으로 다시 판사의 길을 선택하게 된 계기는 진주 형님의 일 때문이었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내과 원장으로 계시던 진주 형님께서 2021년 추석 다음 날 남해고속도로에서 앞서가던 차의 교통사고를 목격하고 그 사고를 수습한 다음 다시 본인의 차에 타려다가 또 다른 사람의 차에 치여 돌아가셨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주위 분들의 도움으로 형님께서 의사자로 지정되었고, 생전의 여러 선행에 대해서도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 그 일이 제 삶을 다시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지금 이대로 사는 것도 한 방법이지만 형님처럼 다른 사람에게 봉사하면서 사는 방법은 없을까 고민하게 되었던 것이지요. 그러다가 내린 결론이 다시 판사로 일하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일은 제가 잘 못하지만 그래도 판사 일은 어느 정도 잘 해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었습니다. 다행히 대법원에서 저를 좋게 평가해서 전담법관으로 선발해 주었습니다.

지난 1년간 사명감을 가지고 재판을 했고, 그러면서 많은 보람도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년까지 5년이 조금 못 남았습니다. 남은 기간 국민에게 봉사하는 자세로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하겠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집안이나 주위 분들에게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인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1세기 韓國 儒敎와 傳統家族文化 批評



참지공파 제24세
이선영

‘儒學’을 종교적인 관점에서 儒敎라고 한다. 유교는 三綱五倫을 덕목으로 하며, 四書三經을 經典으로 삼고 있다. 三綱은 君爲臣綱·父爲子綱·夫爲婦綱이라 하며, 이것은 글자 그대로 임금과 신하, 아버지와 자식, 남편과 아내 사이에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를 의미한다. 五倫은 《孟子》에 나오는 父子有親·君臣有義·夫婦有別·長幼有序·朋友有信의 5가지로서, 아버지와 아들 사이의 道는 親愛에 있으며, 임금과 신하의 도리는 의리에 있고, 부부 사이에는 서로 침범치 못할 人倫의 구별이 있으며, 어른과 어린이 사이에는 차례와 질서가 있어야 하며, 벗의 도리는 믿음에 있음을 뜻한다. 그리고 유교에서 경전으로 삼는 四書三經이란 《論語》, 《孟子》, 《中庸》, 《大學》 등 四書와, 《詩經》, 《書經》, 《周易》 등 三經을 말한다.

그렇다면 유교는 일반적 宗教인가, 일반적 學問인가 하는 의문이 생기게 되고, 또 한국의 전통가족문화는 宗教的 儒敎思想이 바탕인가, 學問的·性理學的 유교사상이 바탕인가 하는 의문도 가지게 된다. 儒敎는 석가모니의 ‘말씀’인 佛經을 信奉하는 佛敎나 예수그리스도의 ‘말씀’인 聖經을 信奉하는 基督敎와는 성격이 다르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유교는 孔子·孟子의 ‘말씀’인 삼강오륜이나 四書三經을 信奉하는 宗教라기보다는 이를 敎育하는 道學的 儒學으로 볼 수 있다. 일종의 道學者에 의한, 백성에 대한 敎育사상인 것이다.

이러한 사상을 바탕으로 조선의 性理學은 독자적 성격을 가지고 형성되었으며, 500년간 유지되어 왔다. 조선은 건국 후 신진 士大夫의 崇儒, 윤리와 명분을 강조하는 性理學을 바탕으로 抑佛崇儒 정책을 폈다. 그중 가장 중요하게 여긴 것은 三綱五倫과 冠婚喪祭의 禮節이었다. 유교의 전통에 따라 나라의 기틀을 확립하기 위한 노력은 世祖 때 만들기 시작하여 30년에 걸쳐 成宗 때 완성한 조선 최고의 法典인 「經國大典」의 편찬에서 나타난다. 2022년 6월 23일 보물로 지정된 이 大典은 ‘나라를 다스리는 큰 法典’이라는 뜻으로, 조선 왕조는 이 大典의 완성으로 독자적인 법체계에 따라 나라를 이끌어 갈 수 있게 되었다. 다시 말해 「經國大典」은 유교에 따라 나라를 다스리는 기준이 되었고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 것이다. 이 大典 중 卷 3에 해당하는 禮典은 科擧와 官制의 의장(儀章) 및 외교·제례·상장(喪葬)·묘지·관인(官印), 공문서의 서식에 관한 규정, 喪服·婚嫁 등 親族法 규범이 수록되어 있다.

조선조 말기 고종 31년(1896년)에 청일전쟁의 와중에서 일본군의 비호 아래 문벌(門閥)과 신분계급 타파, 노비제도 폐지, 조혼금지, 부녀자의 재가허용 등 이른바 甲午更張이라는 強要에 의한, 西洋式 근대적 개혁이 있었다. 이것이 직접 원인이 된 것은 아니겠지만, 이때부터 조선은 國運이 쇠퇴하고 사실상 일본에게 國權을 강탈당하여 36년간 조선의 전통가족문화 계승이 단절되었다. 대표적인 것이 1909년 일제가 신분계급 타파의 일환으로 民籍法을 시행하여 누구나가 다 姓과 本貫을 갖도록 하여 나중에 이를 日本式 姓과 이름으로 바꾸도록 강제한 創氏改名이다. 한국식 姓은 같은 종족 집단, 즉 혈연의 의미가 강하고 일생토록 절대 바꿀 수 없다는 관념의 전통 가족문화를 抹殺한 것이다.



참지공파 25세
이 호 중

비즈니스와 결부된 기부 문화, 지역사회 문제 해결하다

기부 문화의 활성화와 함께 기부 행태의 다양화는 지역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넘어 전세계적으로 긍정적인 변화를 끌어내고 있다. 빈곤이나 기후위기 등 여러 사회적 문제에 대해 기부 문화를 통한 사회적 참여와 상호 연대의 촉진이 그 해결책으로 등장하고 있으며, 기부의 다양화로 기부자들이 스스로 기부 방식을 선택하게 되면서 자신의 역할을 증대시켜 기부 문화를 더욱 확산시킬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고 있다. 최근에는 많은 기업이 기부를 통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면서 긍정적인 비즈니스 이익을 동시에 얻을 수 있게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ESG경영 전략을 위해 동참하고 있으며, 다양한 기부 콘텐츠 제작으로 사람들의 참여도를 높이고 있다.

며, 기부자와 수혜자 간 신뢰를 증가시키는 계기가 되고 있다. 다양한 방식의 프로젝트들로 이루어진 기부 행태를 살펴보기로 한다.

1. 헌 옷 기부 - '옷캔(OTCAN)'

옷캔은 의류폐기물로 인한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인과 기업을 대상으로 의류를 기부받고 있는 환경부 산하 비영리민간단체이다. 옷캔은 기부받은 의류들로 국내외 소외계층 지원사업·업사이클링 지원·자원화 연구의 진행 등에 사용하고 있으며, 환경문제 개선을 위한 정책 제안과 관련 교육·홍보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2. 자발적 모금 플랫폼 - '카카오 같이가치'

카카오는 '임팩트 플랫폼을 활용해 참여를 끌어내고 공익 가치를 확산하겠다' 라는 소셜임팩트 방향 아래 플랫폼이라는 업에 중심을 둔 다양한 사회공헌사업을 펼치고 있다. 그 가운데 기부특화 채널 '카카오 같이가치' 라는 자발적 모금 플랫폼을 통해 기업의 기부행위만으로 그치지 않고 공익적 주제를 통해 누구나 모금을 직접 제안하고 진행과 참여까지 할 수 있는 콘텐츠를 진행하고 있다.

3. 행동참여형 기부 - '빅워크'

빅워크는 앱 사용자가 자신의 '걸음'을 통해 쉽고 재미있게 기부에 참여할 수 있는 '모바일 걸음 기부 서비스' 이다. 스마트폰에 빅워크 앱을 설치하면 이용자의 걸음 수가 자동적으로 측정되고, 그 걸음 수만큼 모은 포인트를 다양한 기업이나 기관의 캠페인에 기부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이러한 기업들은 앱을 통해 기부받은 걸음 수만큼 기부금으로 전환해 원하는 시민·사회·환경단체 등에 직접 기부하면 되는데, 빅워크는 기업들엔 캠페인을 통해 이뤄진 친환경·사회적 효과를 데이터로 제공하게 되고, 이용자들에게는 기업의 기부 결과를 공개함으로써 자신의 기부를 직접 체감하게 한다.

전통적 금전 기부 방식을 벗어난 '다양한 참여형식의 기부' 가 생겨나면서 시민들이 사회적인 문제에 함께 고민하고 다양한 활동으로 기부에도 참여하여 지역사회의 발전에 긍정적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사회공헌 활동에 대한 정부지원 확대의 필요성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위한 활동은 정부의 역할을 기업이 대신 수행해 주는 작용을 하기도 한다. 이는 정부의 부담을 기업에 전가하는 면도 있지만, 정부가 모든 것을 다할 수 없는 현실을 감안할 때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이 감내해야 할 부분이기도 하다. 물론 이러한 기업의 역할에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스템이 갖춰져야 할 것이다.

한편, 경제는 코로나19를 겪으면서 ESG 경영을 강조하고 있으나 실상을 들여다 보면 '말' 뿐인 ESG 경영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올 법도 하다. 과거와 별반 차이가 없거나 후퇴한 면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기업과 정부의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이다. 정부는 기부를 유발하거나 활성화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기업은 그 프로그램을 지원하거나 자체 기부 매칭 프로그램을 만들어 기부자의 기부를 더욱 확대하는 노력을 하여야 한다.

기업의 진정한 ESG 경영과 정부의 지원을 통해 기업과 정부 간의 파트너십을 형성하고 지역사회의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데 협심해 나가야 할 것이다.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기업들의 'ESG 경영'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Blackrock)의 CEO 래리 핑크(Larry Fink)는 2020년 1월 투자자들과 기업 CEO들에게 보낸 연례 서한에서 '앞으로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투자 결정의 기준으로 삼겠다' 고 선언했다. 이후 래리 핑크의 이러한 언급을 신호탄으로 지속가능성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면서 ESG라는 경영 전략이 세계적인 관심사로 부상했다.

ESG는 '환경(Environmental)',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 의 영어 단어 첫 알파벳을 딴 용어로, 2004년 UN 보고서에서 처음 사용된 이래 최근 새로운 투자 기준으로 자리를 잡고 있다. ESG 요소를 투자 기준으로 활용한다는 의미는 기업의 전통적인 재무적 성과 이외에 환경보호, 사회적 책임, 기업의 지배구조와 같은 비재무적 성과를 투자 결정의 주요 요인으로 삼겠다는 것인데, 기업의 기부행위가 바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나 ESG 활동을 판단하는데 있어서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된다.

기업은 활발한 기부활동으로 사회적 영향력을 보여주며 하나의 성장 전략으로 활용하고 있다. 기업기부를 통한 사회적 책임 이행은 고객이나 투자자, 직원 모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며, 이러한 상생 구조의 창출로 인해 기업 성장의 강력한 동기가 부여되는 것이다. 기업의 기부는 구체적으로 기업 이미지 및 상표 가치의 제고와 노동시장의 신뢰관계 회복 및 새로운 커뮤니티의 형성에 크게 이바지하게 된다.

사회공헌 활동을 이윤과 직접 결부할 수는 없지만, 장기적으로는 긍정적 이미지 제고로 인해 기업 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호감과 직원들의 만족도 향상으로 제품의 품질도 개선되어 상표 가치의 상승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지게 된다. 직원으로서 사회적 가치를 지향하는 회사에 대한 충성도가 상승하여 기업과 직원 간의 신뢰 관계 형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게 된다. 또한 사회문제에 관한 관심은 지역사회와 기업 간의 상생 관계를 형성하여 잠재적인 고객의 확보와 새로운 사업 아이템의 개발로 이어지기도 한다. 기업의 기부가 성장 전략으로 주목받게 되었으며, 기업은 공공의 이익에 들어맞으면서도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다양한 가치의 창출을 동시에 이룰 수 있는 길을 열어 가고 있다.

편리하고 투명한 기부의 시대

기업의 기부행위에서 더 나아가 주목할 만한 사실은 기부의 다양화 추세이다. 많은 기업이나 비영리 단체에서는 다양한 방식의 기부 콘텐츠를 만들어 사람들의 참여도를 끌어올리면서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기부 방식은 디지털 기술과 혁신의 발전으로 간편하면서도 투명하게 진화하고 있다. 이러한 기부 방식의 발전과 변화는 기부 문화를 촉진하여 사회적 문제에 대한 지원이 더욱 강화되었으

예와 밥



참의공파 제25세
이 준

사람은 왜 사는가? 또한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동서고금 무수한 현인 철학자들이 항상 이 물음에 골몰했고, 지금도 이 물음은 유효하며, 앞으로의 사람들도 이 물음을 반복할 것이다. 그러나 이 물음에 대한 명쾌한 정답은 아직 없다.

다만 예부터 전해지고 있는 속설은 이것이다. '사람은 밥심으로 산다.' '사람은 살기 위해서 먹는다' 와 '사람은 먹기 위해서 예써 일하며 산다' 라는 말이다.

사람에게 몸이 있는 한 정치의 근본은 '밥' 을 해결해야 하는 곳에 있다. '밥' 에 대한 말을 사마천이 사기(史記)에서 한 이후, 이 말은 시간과 공간을 넘어 반복되고 있다. 세종대왕 실록, 토정 이지함의 상소문에도 똑같은 말이 반복된다. '백성은 밥을 하늘로 삼는다(食爲民天).' 정치가 '밥' 을 떠나면 허공을 찬 헛발질이고, 빈 하늘에 총질해대는 미친 짓이다. 이런 '밥' 의 평등성을 외치며 '만국의 프롤레타리아여, 단결하라' 는 소리로 마르크스와 엥겔스가 1848년 프랑스 2월 혁명 직전 공산주의를 선언한 이래, 이 혁명과업을 이룩하고자 1989년 12월 리비아나 공산당의 쏘련 탈퇴 선언까지 근 150여 년 동안 계급투쟁의 피비린내를 지구상의 곳곳에 뿌렸지만, 결과적으로 이념실험의 결과는 한낱 헛된 구호에 불과했다.

2000년대 들어서서 북한을 탈출한 무수한 '새터민' 들은 이구동성으로 말한다. '총에 맞아 죽으나, 굶어 죽으나 죽기는 마찬가지이기에 목숨을 걸고 압록강을, 두만강을 건넜다' 고... '밥이 곧 생명' 이라고... 그리고 남한에 와서 본 충격적인 모습은 '음식쓰레기' 가 산더미처럼 처리되고 있다는 것이라고...

불과 몇 십년 전까지만 하여도 우리는 예부터 우리 조상님들은 밥을 먹으면서 치르는 두 가지 형태의 의식(儀式)을 습관적으로 행하기도 하였다. 지금은 사라져 버

린 아름답고 경건한 마음의 성례(聖禮)인데, 하나는 '고수례' 또는 '고수리' 하면서 밥술을 뜨거나 술을 마시기 전에 조금 떼어서 허공에 흩뿌리는 예(禮)이고, 하나는 '예' 를 올리는 의식이었다. 이 의식은 모두 복을 주는 신을 존경하고 신이 안전하게 지켜 주실 것을 기원하는 행위이다. 이런 감사의 의식을 경건하게 치르면서 열심히 일하며 살아온 덕에, 지금 우리는 '음식쓰레기' 를 산더미처럼 버릴 만큼 넉넉하게 잘살고 있는지도 모른다.

다만 '예' 에 대해서만은 설(說)들이 분분하다. 한자 문화를 존중하는 사람들은 '묘(墓)' 의 발음이 전이 되어 '뫼' '매' 로 되고, 이는 산에 붙은 선조들을 가리키는 말로 되었다는 주장이다. 반면 우리말은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은 '산(山)' '강(江)' 이란 글자가 들어오면서 순우리말인 '뫼' '가람' 이라는 말이 사라져 버렸는데, 우리 말 '뫼' 와 '매' 는 전혀 다른 말이라고 주장한다. '뫼' 는 '수북이 솟아오른 모습을 뜻하는 말이고, '매' 는 제사 때 신위(神位) 앞에 놓는 '밥' , 또는 궁중에서 높은 분들이 드시는 '밥' 을 말하는 것으로서, '뫼' 을 높여 부르는 말이라는 것이다. 다만 '매밥' 은 '뫼뫼' 로 지은 보통 밥으로서, 찰쌀로 지은 찰밥과 구분하여 부르는 일반명사이기에 '매' 와는 의미가 다르다고 한다.

어떻든 사람들이 목숨을 유지하기 위해선 숨 쉬는 '공기' , 몸의 세포를 지탱하는 '물' , 이와 더불어 '밥' , 이 세 가지가 절대적으로 중요한데, 목숨을 유지하여 주는 '밥' 을 먹기 전에 밥과 복을 주는 절대자에게, 초월자에게, 천지신명에게, 조상님들에게 경건하고 아름답고 감사한 마음을 표하는 사람들에게 하늘과 땅과 사람이 복을 주고 먹거리를 건강한 생명을 이어주리라는 것은 일상적인 생각으로도 당연한 섭리가 아닌가 한다.

자기 밥그릇만 챙기는 '나쁜인 사람' 보다, 다른 이들, 나아가 보이지 않는 초월적 섭리, 나의 뿌리인 부모와 조상들에 대하여 겸허하고 진정 고마워하는 마음을 표하는 '고수례' 와 '예' 의 의식을 제각기 경건하게 행하는 이들에게, 조상과 천지신명이 복을 내릴 것을 당연한 일이 아닌가 한다.

아름다운 구구팔팔이삼사(9988234)를 위하여



우소재공파 25세 이영춘

노년의 삶에 있어 '이것은 좋고 저것은 나쁘다.' 라고 잘라 말할 순 없지만, 100세 시대를 살아가야 할 우리들 세대에서는 노년의 삶에 대해 생각하게 하는 무언가가 있어 보인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에 의하면 한국 성인 불안 요소 1위가 노후 준비, 2위가 취업과 소득, 3위가 건강, 4위가 자녀교육과 가족부양, 5위가 노화로 인한 신체와 정신적 문제라고 한다. 이를 뒤집어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 성인들의 노후 목표는 적당한 돈을 지니고 심신이 건강하게 사는 것으로 귀결될 수 있을 것이다. 노후생활은 노년에 접어든 성인들에게 결코 떨쳐낼 수 없는 불안의 대상이다.

100세 시대는 과학의 발전이 우리에게 가져다준 커다란 선물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론 사람에 따라서는 축복보다 오히려 비극이 될 수도 있다. 우스갯소리로 '재수 나쁘면 200살까지 산다.' 라는 말이 나올 정도다. 삶의 질을 고려하지 않는 100세 시대의 유병장수(有病長壽)는 결코 축복될 수 없는 것이다.

노후를 건강하게 지내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준비가 반드시 필요하다. 노후에 대한 준비가 부족하면 부족할수록 긍정적 예측이 불가능해지기 때문이다. '퇴직 5년 전부터 퇴직 후 삶을 대비하면 실패가 최소화된다.' 라는 말을 듣게 되는 것처럼 노후를 건강하게 지내기 위한 최소한의 준비와 계획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100세 건강이란 주제로 인터넷을 검색하면 수천 가지의 다양한 방법들이 있지만 그것들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소식하라. 많이 먹으면 영양과잉으로 신체활동이 둔화하므로 약간 부족한 듯 적게 먹는 것이 오히려 세포 활동을 활성화해 주기 때문에 소식은 노후 건강의 기본임을 잊지 말라는 것이다.

둘째, '신이 준 선물' 인 운동을 습관처럼 즐기라. 좋아하는 운동을 중심으로 생활 속에서 규칙적으로 실천하는 것이 노후 건강의 필수요소이다.

셋째, 바른 식생활을 하자. 항산화 성분이 많이 들어있는 신선한 과일과 채소를 충분히 섭취하고 등 푸른 생선을 자주 먹는 것, 기름에 굽거나 튀긴 동물성 지방보다는 삶아서 기름기를 제거한 수육이나 편육 형태 등의 단백질을 섭취하도록 하는 것이다.

넷째, 머리를 많이 쓰라. 신문과 책 읽기를 즐기고 그림을 그리거나 외국어 공부해 보기, 바둑이나 컴퓨터 게임 적당하게 즐기, 인터넷 속 정보 검색을 통한 지식 습득도 좋은 방법이다.

다섯째, 우(友)테크에 눈을 돌려 사람들과 어울려라. 누구든 고독의 말년을 보내지 않으려면 함께 할 친구들을 만들고 관리하는 일에 정성을 쏟아서 사회적 활동을 해야 한다.

우(友)테크는 공동체를 통한 행복을 만드는 기술이며 노년을 행복하게 지낼 수 있는 좋은 전략이다.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다!' 라는 말처럼 건강관리에 이보다 더 적절한 표현은 없을 것이다. 구슬구 세까지 팔팔하게 살고 이삼일 앞다 이 세상을 떠나고(9988234) 싶다면, 물론 말은 쉽고 실행은 어렵겠지만 지금부터 실천하는 것이 바로 그 해답일 것이다.

나를 일으켜 줄 것 같은 글



참지공파 24세 이기명

① "내 인생에 힘이 되어준 한마디" 책에서 발췌한 글 귀입니다. 삶 속에 응용할 때 나를 일으켜 줄 것 같습니다. 하여, 공유하고자 이 글을 씁니다.

② 인생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더 최선을 요구합니다.

③ 어찌면 당신은 대패질할 때가 아니라 대패 날을 갈 때인지 모릅니다. 어찌면 대패날을 가는 시간이 우리의 인생 전체일 수 있습니다.

④ 누구나 시련 없이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지만 시련 없이 인생이 형성되지 않습니다. 해가 뜨고 지는 것이 우주의 기본 질서이듯이 제게 혹독한 시련이 있는 것은 그 기본 질서에 대한 절대적 수용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시련을 수용하면 시련은 저를 위로해 주지 않지만, 강한 단련의 시간을 선물합니다. 어떠한 고난이 다치더라도 견디고 일어날 수 있는 용기의 씨앗을 심어줍니다. 제게 용기의 씨앗이 자란다는 것은 울음을 참고 열심히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⑤ 목표를 세우면 그 목표를 내가 따라가는 것 같지만, 실은 목표가 나를 이끕니다. 처음부터 자기 능력에 맞는 일을 하기보다는 하고 싶은 일을 꾸준히 해나갈 수 있는 능력을 형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능력이란 가만히 있는데 미리 주어진 것이 아니라, 열심히 노력하는 과정에서 형성되는 것입니다.

⑥ 성공하는 사람의 특징은 참고 기다릴 줄 안다는 것입니다. 천재도 단지 오랫동안 참는 사람뿐입니다. 재능이 있으면서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은 인내의 결핍 때문입니다.

⑦ 자살하려던 독수리는 대장 독수리 말에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나를 보라 내 온몸도 이렇게 상처이잖니, 상처 없는 독수리가 어디 있겠어, 이견 곁에 드러난 상처일 뿐이다. 내 마음의 상처는 이보다 더하다. 일어나 날아보자.

⑧ 원예사들은 꽃나무를 꺾어 꺾꽂이할 때, 모래밭에다 합니다. 이렇게 무엇인가 부족함이 있을 때 그 노력이 촉발됩니다. 진정한 결핍이 곧 삶의 원동력입니다.

⑨ 살아가다 보면 다른 사람 말 한마디가 아버지처럼 용기를 줄 때가 있습니다. 책에 맑은 한 줄의 글귀가 어머니처럼 위안과 위로를 줄 때가 있습니다.

서기 2024년 봄

농촌지역인 陝川·居昌花樹會의 활성화를 바랍니다



한경 화수회 우소재공파 29세 이태원

陝川·居昌花樹會는 합천군 봉산면 고삼 등 3개 마을과 인접한 거창군 가조면 광성마을에 집성촌을 이루며 살고 있는 종친들 간 親睦을 도모하기 위하여, 1961년 陰3월에 합천군 봉산면 고삼리 거주 후손 正鎭(정호, 생원공과 24대)님께서 창립 취지를 선언하는 花樹契 序文을 작성하고, 또 陰4월12일 합천군 봉산면 고삼(高三), 양지(陽地), 저포(苧浦), 거창군 가조면 광성(廣城) 등 4개 마을 종친 221명이 창립결의하였으며, 같은 해 陰 7월 7일 기금 마련을 위해 백미(白米), 정맥(精麥)을 세대별 수집하여 기금 181,860원(圓)을 마련하였고, 다음 해인 1962년 陰3월 30일 창립총회를 시작으로 매년 陰3월 회일(晦日, 그믐날, 30일)에 4개 마을별 재실 등에서 순회하며 모임을 이어 왔습니다. (현재는 4월 마지막 주 토요일, 식당에서 총회)

1984년 합천댐 건설로 수몰 전 당시 봉산면 내 우리 종인들 세대수는 합천이씨 다음으로 132세대가 거주하여 타 성씨들이 부러워할 정도로 화수회가 활성화되었으나, 합천댐으로 봉산면 저포(苧浦) 마을 등이 수몰되어 많은 종인들이 대구 등지로 이주하였고 또한 근대 산업화로 농촌 인구가 급격히 줄어 현재는 60여 세대 100여명이 거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동안 합천·거창화수회는 60여년 세월을 지나면서 대종회에서 시조사우 건립, 족보발간, 총람 발간 사업 등에 적극적인 참여를 하면서 타지역 화수회 귀감이 될 정도로 활성화되었으나, 그간 화수회 관심이 많던 종인들께서 연세가 많아져 거동이 불편하거나 타계하신 분들이 많고, 특히 지난 코로나19를 지나면서 관심과 참여도가 낮아졌으며, 농촌 인구 소멸 위기로 향후 화수회 운영은 더욱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므로 화수회 활성화를 위해서는 각 마을 종인들께서 젊은 층의 참여를 유도하고,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서른한 번의 *유레카(Eureka!!)



우소재공파 27세 이경문(諱名 문준)

내가 어린 시절 야생마처럼 자유롭게 들과 산으로 뛰어다니며 놀던 하늘 아래 첫 동네, 비행기는 볼 수 있어도 자동차는 볼 수 없는, 경남 합천군 봉산면 양지리 2구 제전동, 나의 추억과 향수(嚮愁)를 엮어 놓은 곳이다.

일본에서 재일교포로 살다 4살 때 아버지의 고향인 이곳으로 와서 8살이 되던 해 1951년 4월에 경남 합천군 봉산면 솔곡리 소재 옥계국민학교(합천 댐으로 수몰) 1학년에 입학했다. 내가 이 학교 8회 졸업생이니 학교의 역사는 오래되지 않았고 그 당시 교육 환경은 무척 낙후되어 있었으며, 6.25 전쟁 1년이 되어 가는 때라 사회 분위기도 뒤숭숭한 때였다.

교실이 부족하여서 한 교실에 2개 학년이 들어가 한 선생님이 가르치던 때, 저희 1학년이 배정받은 교실은 운동장 바깥 한 구석진 곳에 있는 초가삼간의 빈 사택 벽을 헐어, 소(小)칠관에 바닥은 가마니를 뜯어서 깔아 놓고 그 위에 앉아 글도 쓰고, 모든 교과 활동이 이루어졌으며, 전쟁으로 인한 찢어지는 비행기 소음에 선생님의 학습지도 설명이 자주 중단되곤 했다. 이런저런 서투른 학교생활에 조잘대던 1학년 철부지들, 어느덧 여름 방학을 맞게 되는데 이때 나에게 아주 큰 충격을 주는 걱정거리 하나가 생기게 되었다.

방학 전날 선생님께서 "내일부터 방학이다." 방학을 마치고 학교 오는 날은 "서른한 밤"을 자고 오면 된다는 것이었다. 나는 이때부터 고민이 쌓이기 시작했다. 서른한 밤을 어떻게 계산해서 방학을 마치고 결석하지 않고 무사히 학교에 나올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었다. 갑자기 머리가 멍해지며 아무런 생각이 떠오르지 않고 어떻게 해야 하지, 하는 생각에 방학하는 날이 즐겁기는커녕 고민으로 가득 찬 시간이 지나가고 있었다.

이렇게 얽히고설킨 고민을 하던 중에 선생님께서 이제 마치고 청소하러 가자는 말씀에 학생들은 우루루 몰려 나가 운동장을 돌며 쓰레기를 주워 선생님께 검사를 마치면 집에 가게 된다. 걱정에 잠겨 열심히 쓰레기를 줍던 나는 버드나무 밑에서 마른 가지를 보는 순간 번쩍(Eureka !!) 하는 아이디어가 떠올랐다. 그것은 다름 아닌 "이 나뭇가지를 서른한 개 부러뜨려서 하룻밤 자고 하나씩 버리다 보면 없어지는 때가 학교 가는 날이 되겠구나" 하고 혼자 중얼거리며, 해결된 고민과 날아갈 것 같은 기분에 유령이 나온다는 산속 오솔길도 아랑곳하지 않고 신나게 집에 오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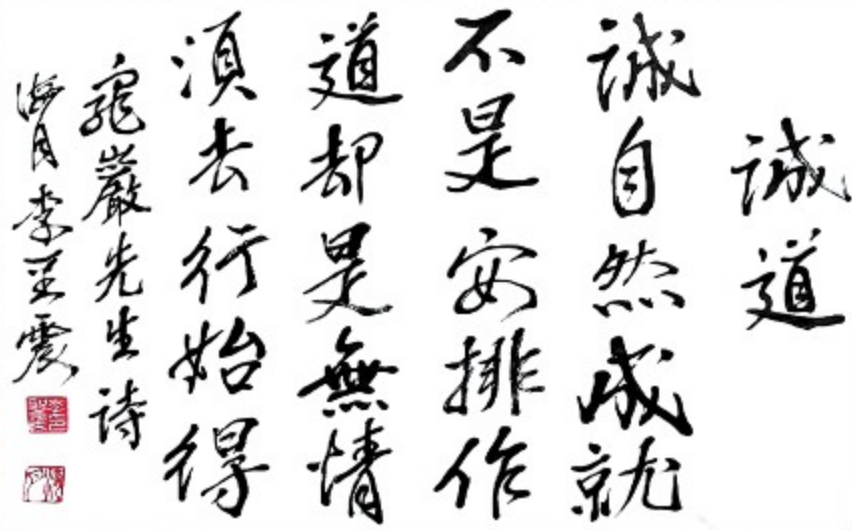
집에 와서는 가족이 모르는 방안 한구석 설경에 짧게 부러뜨린 나뭇가지를 숨겨두고 하나씩 하나씩 버리던 어느 날 동네 상급생 형이 "내일이 학교 가는 날" 이라고 했다. 나는 깜짝 놀라 숨겨 놓은 나뭇가지를 확인해 보니 아직도 3개가 남아 있었다. 다시 달려가 아니라고 우겼으나 결국은 내가 두 번을 버리지 않아서 벌어진 나의 엄청난 실수였다. 솔로몬(Solomon)의 지혜라고 생각했던 '서른한 번의 유레카(Eureka !!)!!' 그렇게 기대에 부풀었던 꿈의 대장정은 이 것으로 끝을 맺었다.

지금에 와서 생각해 보면 천진 순수한 그때의 고민들이 1학년 수준단계, 좁은 내면의 세계를 말해주는 것 같아 신선함이 묻어난다. 비록 햇병아리 1학년의 어린 지혜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했지만, 코흘리개 시절로 돌아가 보면 참신하고 기발한 그때의 아이디어가 노년의 입가에 미소를 짓게 한다.

추기(追記) : * 유레카(Eureka !!) : 바로 이거야!! 무슨 의문에 대하여 답을 알아냈을 때 기쁨에 소리친 말. 아르키메데스(그리스)가 처음 한 말.

끝으로 금번 전자 족보 등재에 즈음하여 주위 많은 분께 홍보 및 자료 제공, 기재 방법 안내로 전자문서 완성도를 높이는 데 크게 이바지했고, 나를 '뿌리 소식지 원고 공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보와 동기를 유발한 도현(道鉉, 27세, 대구) 족제(族弟)에게도 고마움을 전하며, 마지막으로 '뿌리 소식지 원고 공모'에서부터 발행, 홍보까지 이 어려운 과정을 헌신적으로 임해 주시는 편집 위원님과 담당 관계자분들의 노고에 머리 숙여 찬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성(誠)과 도(道)



성균진사공파 26세 이성진

성(誠)은 자연히 이루어지고
안배하여 지어지는 것이 아니요,
도(道)는 것은 무정해서
모름지기 가고 행해야 비로소 얻어진다오.

誠自然成就 (성자연성취)
성(誠)은 자연히 성취되는 것이니

不是安排作 (불시안배작)
사람이 안배해 만들어 아니요

道却是無情 (도각시무정)
도(道)는 도리어 정(情)이 없지마는

須去行始得 (수거행시득)
모름지기 실천해 나가야 합니다.

“誠”은 한자로 “성실함”을 의미하며, “道”는 “길” 또는 “원칙”을 의미합니다. 이 두 단어는 동양 철학에서 중요한 개념으로 사용되며, 특히 증용(中庸)에서는 이 두 개념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증용에서 “誠(성실함)”은 자신을 이루고 남을 이루는 데 필요한 덕의 본질을 의미합니다. “道(길)”은 천지자연의 원리를 따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誠과道”는 자신과 타인, 그리고 자연과의 관계에서 성실함과 원칙을 따르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동양 철학의 핵심 개념입니다.

참고로, 이러한 개념은 동양 철학뿐만 아니라 동양 문화, 윤리, 그리고 사회적 행동에도 깊은 영향을 미칩니다.

이 시 전체는 『중용(中庸)』 제25장 “성(誠)은 자연히 이루어지고 도(道)는 스스로 행하여야 한다.(誠者 自成也 而道 自道也)”에 대하여, 주자(朱子)가 소주(小註)에서 “성(誠)은 자연히 성취되는 도리이니, 사람이 만들고 안배할 사물이 아니고, 도(道)는 도리어 감정이 없는 도리이니, 모름지기 사람이 스스로 해나가야 한다.(誠者是個自然成就道理 不是人去作安排底物事 道却是個無情底道理 却須是人自去行始得)”고 한 풀이에 근거하였습니다.

龜巖 이정(李楨) 선생은 1512년 사천을 구암리에서 태어난 사천(동성)이씨 문중의 인물입니다. 그의 이름은 정(楨), 자는 강이(剛而), 호는 구암(龜巖)입니다.

그는 12세에 하과(夏課)에 장원하고, 25세에 문과에 장원급제(壯元及第)하였습니다. 그의 스승은 구암(圭巖) 송인수(宋麟壽) 선생이었습니다.

구암 이정 선생은 조정에서 학문과 연관된 벼슬을 많이 맡았습니다. 승정원 부승지, 대사간, 부제학 등의 벼슬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부터 학문 서적을 중국으로부터 사들여 우리나라 유학(儒學)의 도대를 쌓았습니다. 퇴계 이황 선생과의 교류는 평생 지속되었으며, 그의 학문에는 구암의 유학(儒學) 서적의 지원이 그 밑바탕에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였습니다.

구암 이정 선생의 사상은 그의 학문적 업적과 그가 맡았던 벼슬, 그리고 그의 행보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는 학문과 실천을 통해 사회에 이바지하려 노력하였으며, 그의 사상은 그의 시(詩)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성균진사공파 26세 이성진 서예가의 작품으로 2024년 4월 구계서원 춘향제 참석 때 요청하였더니 흔쾌히 그날 저녁 일필휘지로써 보내주셨습니다. 선생은 사단법인 전국서화예술인협회 초대작가, 한국주사서예가협회 대의원 등으로 활동하고 개인전 및 회원전에 출품하여 설송문화상을 수상한 바도 있는 열정적인 예술가입니다. (편집자 주)

구암 이정묘소 보존 정비



우소재공파 제25세 이영근

■ 묘소의 전 실태

구암 이정 묘소 보수 공사 마무리 후 야생 멧돼지 출몰로 묘지 벌판 훼손이 심각할 것으로 예상되어 묘소 둘레 울타리 설치(연두색 펜스)가 시급한 실정이며, 울타리 설치로 인해 묘소 기존 진입도로 일부가 통행할 수 없게 되므로 대체 진입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입니다.

■ 묘소사업현황

위치는 경상남도 진주시 정촌면 대축리 산 240-2이고, 경상남도 기념물 제284호(면적 1,184㎡)이며,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는 사각형 내(가로 29.6m x 세로 40m)입니다.

사업계획은 묘지 둘레 적색선(울타리 펜스설치 구간 약250m)와 묘소 진입도로 개설 약 80m로서 소요사업비는 약 20,000천원 정도 예상합니다.

■ 묘소허가사항

결명은 이정묘 현상변경 허가건이고, 허가공기는 2023. 7. 10~2024. 7. 9(1년간)이며 허가권은 경상남도(문화유산과)입니다.

■ 구암 이정묘소 전 모습



묘소 모습

■ 묘소 울타리 전 모습



■ 구암 이정묘소 현상변경 허가 묘소 현황



※ 문화재 보호구역 : 사각형 내(가로 29.6m x 세로 40m)

※ 문화재 제외구역 : 묘지 둘레 적색선 (울타리 펜스설치구간 약250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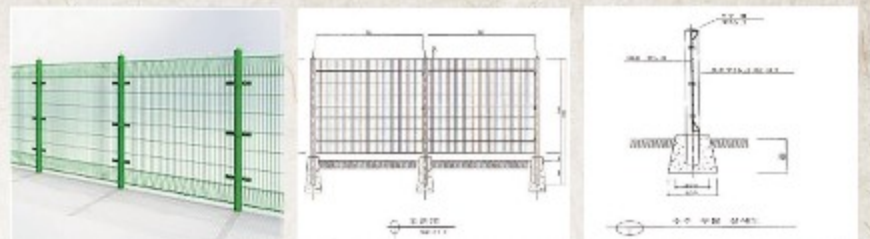


멧돼지로 인한 피해 모습



■ 묘소 울타리 메쉬펜스 설계도면

- 울타리 펜스설치 모형(사진) - 색상 : 연두색



- 묘소 출입문(쌍문) 펜스 설치사진



■ 묘소 울타리 공사 후 모습 (2024년 4월9일 현재)



■ 묘소 진입로 공사 후 모습



■ 묘소 진입 전 구암 이정 묘비 (2021년 12월 건립)



내가 나를 아는 것은?

門尙祖崇



백인재공파 제25세 이형환

얕게 아는 것이 많으면 자만에 빠져 믿고 설치다 보면 무슨 뜻에 걸리게 마련이다. 그리고 지식을 좀 쌓았다 싶으면 고집스럽게 세상을 보려고 하기에 편견도 독단도 생기고 시아비야(是也非也)가 일어나기도 한다.

이러한 것들을 고치는 데 필요한 약은 바로 지혜(智慧)라고 본다. 지식(知識)은 사물을 알게 하지만 지혜는 자신을 스스로 가늠해 볼 수 있는 치수를 잃어서 설 자리를 알게 하여 줄 수가 있다. 자연스럽게 내가 나를 알게도 하고 반성 속에서 되돌아볼 줄을 안다는 것은 나를 찾아간다는 것과 같고, 이러한 마음이 있는 사람은 스스로 겸허하여 정직하게 된다고 생각한다.

공자께서는 “子曰(자왈) 我非生而知之者(아비생이지지자)라 好古敏以求之者也(호고민이구지자야)로라” 하여 나라고 해서 태어나면서 저절로 아는 사람은 아니다. 옛것을 좋아하여 부지런히 찾아 배워 알게 된 사람일 뿐이다. 이렇게 공자는 살렸다.

겨울이 된 뒤에야 소나무와 잣나무가 낙엽이 지지 않음을 알았다면, 첨단 과학의 발전으로 문명의 혜택을 누리고 쉽게 안주(安住)하면서, 알고 살아가야 할 것을 아주 버리고, 돌아보지도 않고 걸어가는 삶은 인적까지 끊긴 추수 끝난 빈 들판에 외롭게 서 있는 허수아비와 무엇이 다를지 싶다.

인생은 행복을 배우는 과정이다. 이 행복도 내 힘으로 걸을 때 내 몫이 되므로, 문중의 내력을 잘 아는 것이 가문에 대한 자부심이듯이 우리의 문중에 빛을 보지 못한 인물과 자료를 찾아서 몰랐던 사실과 진실을 익혀서 후손에게 물려 줘야 할 책무도 지금의 우리는 지니고 있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모르는 것과 무관심이다. 선대(先代)께서 일귀농은 훌륭한 유산 속에 살아있는 조상의 기상(奇想)과 정신(精神), 가풍(家風)에 담긴 뿌리의 가치를 알아서 보존(保存)과 보전(補填)에 힘써서 밝게 나타나도록 하는 것이다.



감사 편지

올해도 수고한다는 편지가 왔습니다. 연세가 많아 몸이 불편하셔도 대종회의 발전을 바라는 마음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고 즐거운 나날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백인재공파 제25세 이형수



대동보 족보발간에서 뿌리를 찾습니다

다음 우리 종인의 뿌리를 아시는 분은 족보발간 위원 이영근(010-2586-2094)으로 연락, 메시지 주시기를 바랍니다. 꼭 족보에 연결하고 싶습니다.

개인별 등재사항 신청서(간편을지)				접수담당	지파회장	대종회장
신규□, 추가■, 수정□				(인) 접수번호	(인)	(인)
신청인	이종배(李宗培)	파&세	?파 ? 세	신청인의	명제(永濟)	
주소		전화	010-5387-7933	E-Mail		
세	이름(위)	신청인과의 관계	등재 사항			
첫	근우(根祐)	증조부	?세 이근우(李根祐) 본적지 : 광양시 광양읍 목성리 916. 생 미상. 후 미상 配 박인숙(朴仁淑) 밀양인(密陽人) 父는 계영(啓英). 생 1862년 9월12일. 후 1927년11월8일. 향년66세			
둘	찬기(贊琪)	할아버지	근우(根祐)의 자 찬기(贊琪) 생 1882년5월22일. 후 1966년7월4일. 향년85세 배(配) 장정화(張貞化) 인동인(仁洞人) 父는 관여(官汝)이다. 생 1891년2월12일. 후 1975년11월25일. 향년85세			

사천(동성)이씨 대동보 족보발간사업 (2024년 3월말 현재)



대종회 부회장 선무랑공파 24세 이영근

목표

우리 족보는 우리 종인의 역사 기록으로, 먼 훗날까지 지속해서 기록되어 전승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종인 각각의 인터넷 족보자료를 충분히 확보하고, 그 자료를 인쇄하여 새 족보로 만들어 배포하고 영구보존 하고자 합니다.

과정

- 2023. 8. 12. : 인터넷 족보의 외주(부리정보미디어) 계약
- 2023년 9월 : 홈페이지 개통("사천이씨.com")
- 2023년 10월 : 구 족보 한글화 완료 및 인터넷 족보 개통 (홈페이지에 연결)
- 2023년 11월 ~ 2024년 2월 : 1차 인터넷 족보보완 작업 완료
- 2024년 3월 : 인터넷 족보입력자 변경 (회사 => 외부입력 프로그램 제공 => 발간위원이 직접 입력)

결과 (2024년 3월 31일 현재)

등재 인원 현황

연번	파 이름	신청자	증&묘	며느리	아들	딸	사위	학력 학위	경력 상훈	내용 고침	사진 등록	족보 예약	비고
1	침지공파	299	48	49	69	56	23	38	40	93	3	17	.
2	진사공파	148	33	16	34	30	16	2	8	36	0	0	.
3	침의공파	18	4	1	4	4	3	0	1	5	0	0	.
4	침정공파	15	2	3	2	4	3	0	0	4	0	2	.
5	우소재공파	342	54	41	94	65	50	34	63	72	0	16	.
6	백인재공파	174	30	29	42	34	12	9	5	38	0	10	.
7	성균진사공파	221	42	33	53	46	13	44	47	32	15	8	.
8	선무랑공파	4	4	0	0	0	0	0	0	0	0	0	기구족원료
9	생원공파	81	7	7	19	20	12	3	9	13	0	5	.
합계		1,302	224	179	317	259	132	130	173	293	18	58	신규 등재 887명

- 등재 또는 보완한 사람 수 : 1,302명, 후 및 墓 경신 : 224명
- 며느리 등재 : 179명, 子 등재 : 317명, 女 등재 : 259명 (친손 외손 포함), 사위 등재 : 132명 (신규 등재자 수 : 887명)
- 학력, 학위 등재 : 130건, 경력, 상훈 등재 : 173건, 내용 고침 : 293건
- 사진등록 : 18건, 족보예약 : 58건
- ☆ 각 파의 수단위원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개별적으로 보내 주신 종인님 고맙습니다.

족보 등재비 수입 지출

	수입	지출	비고
종인등재비	16,516,184	초기계약금	5,000,000
찬조금	4,200,000	1차중도금	20,000,000
차입금	8,000,000	2차중도금	10,000,000
백인재	5,000,000		
대종회	3,000,000		
			총계약금액
소계	36,716,184		35,000,000
통장잔액	1,716,184	지출잔금	15,000,000

앞으로 할 일

- 2차 인터넷 족보 보완 작업 및 신족보 인쇄계획 수립(2024년 3월 ~ 2025년 2월 말)
- 지속적 홍보 => 우리 종인들의 인터넷 족보 열람 활성화 => 족보에 대한 관심 촉구.
- (가칭) 파별 족보등재위원회의 구성 => 파별 족보 상세 열람 => 족보에 빠진 집안 확인 => 여기 저기 수소문 => 위원회 위원 협력하여 족보 등재 설득 => 자료 제출
- 우리 대종회에서는 한자와 족보를 잘 모르는 젊은 후손들에게 효(孝)와 뿌리교육, 인성교육 활성화 차원에서 족보편찬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족보편찬은 호주제와 호적법이 폐지됨에 따라 후손들에게 조상의 뿌리를 찾아 줄 수 있는 길이 족보편찬이라는 사실을 널리 알리고, 한글세대가 쉽고 재미있게 볼 수 있도록 국한문 혼용으로 보책을 발행하며, 인터넷 족보구축을 위해 전산화 작업을 병행할 것입니다. 본 인터넷족보 구축 및 족보편찬 사업은 큰 비용이 소요됩니다. 따라서 우리 대종회에서는 인터넷 족보편찬에 따른 협찬금을 받고 있습니다. 많은 협찬 부탁드립니다.

족보자료(수단)를 보낼 곳 : e-mail => leeyggm@gmail.com

- 우편 => 경남 하동군 황천면 원곡길 50-1, 휴휴재 이영근 (☎010-2586-2094)
- 대종회 족보발간 계좌번호 : 농협 351-1285-4126-63 예금주 : 사천(동성)이씨대종회
- ※ 족보자료(수단)양식은 "사천이씨.com"에서 '다운down'받을 수 있습니다.
- ※ 족보 입력자료는 폰의 사진으로, 메시지 또는 카톡으로도 보낼 수 있습니다.

소식지 11호 원고 모집

여기 소식지 11호에 담을 원고를 청탁하오니, 부디 사양 마시고 보내 주시면, 정성 들여 인쇄하여 널리 배포하겠습니다.

- ★ 소식지의 성격 : 학술적인 것 보다 일상생활 주변 이야기 중심으로 가볍고 쉽게 읽힐 수 있는 소식 또는 우리 관향인 사천의 문화 등
- ★ 원고의 분량 : 제한 없음(반드시 개인사진, 자료사진 포함)
- ★ 원고 송부 마감 일시 및 소식지 10호 발행 일시 : 2025년 3월말, 대종회 춘향제
- ★ 소식지 발행에 따른 기부금 접수 또는 광고비 : 대종회 사무국
- ★ 원고를 보낼 곳 : e-mail => leeyggm@gmail.com

편집위원 이영근 (선무랑공파 제24세, 010-2586-2094)